

記錄에도 여기 저기 傳해오지만 穆氏夫妻는 一八八二年末에 朝鮮에 와서 一八八五年末까지 三年間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夫妻가 모두 韓服을 常用하고 또 穆氏는 통영삿갓을 즐겨 썼다하니 穆氏가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통영삿갓으로 생각된다. 그가 입고 있는 洋服도 아니고 韓服도 아닌 마고자 비슷한 긴 上衣는 그가 朝鮮에 오기 전에 三十年 가까이 中國에 常住했었다는 事實로 보아 아마 洋、漢、韓 三國의 折衝式이 아닐까 그 夫人의 노란 머리위에는 花冠이 없어져 있고 紫朱 끝둥이 달린 異樣한 上衣를 입고 있는 품이 흥미로움다고 하겠다. 日本側代表 竹添公使는 閱全權앞에 脫帽하고 앉은 和服人士에 比定되며 그중 바른쪽 맨 끝에 앉아서 韓服의 女人과 이야기하는 日本女性이 바로 竹添公使夫人일 것이라는 것이 能히 짐작이 되는데 어쨌든 夫人同伴의 이러한 洋式 招宴樣式이 벌써 이 時代의 朝野에 流行했던것을 생각하면 韓、獨、日의 三國人士가 同席한 이 晚餐會의 光景이 마치 近代 韓國開化의 序幕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禁할 수가 없다. 食卓위에 놓인 飲食은 洋食종류의 생선 튀김인것 같으며 거기에 스푼이니 나이후니 하는 洋食器, 그리고 角砂糖 그릇이 신기스러운듯이 느껴놓인것을 보면 커피나 紅茶같은 洋茶도 나와 있음을 알겠다. 木彫物인듯한 雙燭臺의 불꽃이 眞紅으로 빛나고 꽃꽂이 노란花瓶에 紅브를 둘러느린 솜씨 등 東西가 折衝된 이 신기한 분위기는 都是 宮속같은 李朝末에의 야릇한 鄉愁같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한복 女性의 珊瑚비녀나 和服 女性의 眞紅계다끈 등 심세한 部分까지 表現하려고 애쓴점, 그리고 十三人の 人物들이 혹은 차잔을 들고 혹은 옆을 돌아보며 各個가 다른 表情과 姿勢로 談話가 한참 무르익는듯한 場面的 表現을 보인點等은 이 作家의 능숙한 솜씨를 말해주는 것이며 다만 畫員의 한사람이었으리라는 추측이 있을뿐 作家를 밝힐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이 作家가 安心田이 아닐까하는 說도 있으나 이것은 분명히 할 도리는 지금 없을 것 같다.

鎮川 玉城里的 塔像

鄭 永 鎬

忠北 鎮川郡 文白面 玉城里 玉山部落에서 골짜기로約 1km쯤 올라가면 路邊밭쪽에 三層石塔과 石佛坐像이 遺存한다. 周圍밭에 瓦片이 散亂한 點으로 보아 이 一帶가 寺址로 推定되며 塔像도 現在 原位置는 아니나 이 寺址의 遺品임에는 틀림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곳에서約 四km쯤 더 올라가면 또 한 곳에 寺址가 있고 瓦片이 散在한다고 하는데(鎮川教育課 鄭寅和氏談) 앞으로의 調査가 注目된다.

一、三層石塔

倒壞되었었던 탓인지 各部에 破損이 많고 塔材가 놓인 順序도 바뀌어졌으며 缺失된 部分도 있다. 屋蓋石은 三層이 다 具備되었으나 塔身은 二層한층만이 남아 있다. 屋蓋의 받침은 四段式이며 落水面은 急傾斜를 이루었고 轉角에 返轉이 있으나 鈍厚한 편이다. 塔身에는 兩隅柱가 두 렷이 刻出되었었다. 基壇部도 缺失되어 다만 下部에 長六三cm、厚十二cm의 方形板石一枚만 놓여있어서 原形을 알기는 困難하다. 落水面이나 屋蓋받침 등의 手法으로 미루어 年代는 高麗中期로 推定된다. 實測值(cm)는 一層屋蓋石長五七、二層은 四七、三層은 三三이며 一層塔身은 高十二幅 三六 隅柱幅 六·五이다.

二、石佛坐像

花崗岩으로 두께 二十一cm의 板石에 浮彫하였는데 蓮花座위에 結跏趺座한 藥師如來像이다. 素髮의 頭頂에는 肉髻가 있고 兩耳가 길게 늘어졌으며 白毫는 없다. 鼻樑과 口唇에 若干의 磨損이 있으나 眉眼等이 뚜렷하며 相好가 圓滿하고 양볼에는 微笑를 띠었다. 목에는 三道가 있으며 通肩한 法衣는 양팔을 걸쳐 무릎을 덮었는데 그 線이 굵게 彫刻되었고 圓樣의인 印象을 준다. 光背는 圓形頭光 身光이 刻出되었으나 그



像高八〇 頭高二七 肩幅三四 膝幅六三 胸幅二〇 蓮座幅八〇 頭光幅四五 身光幅七〇、板石高一一六 廣幅一〇〇이다.

끝으로 本調査에 있어 三伏의 무더위에 案内와 많은 便宜를 주신 忠北道文化課의 李相弼氏와 鎭川郡教育課의 鄭寅和氏께 感謝를 드린다.

醴泉 下里의 石塔 二基

崔 成 鳳

醴泉邑에서 上里行 卍—스르 一六 km 下里面所在地에서 下車、徒歩로 東便 溪谷을 一 km 가량 오르면 塔洞에 이른다.

이 洞내 건너 논과 언덕에 新羅末 乃至 高麗初期로 推測되는 石塔 二基가 있다. 其一은 現存三層으로 언덕 정자나무 雙樹사이 에 끼이듯이安置되어 있다. 原位置는 約 十 m 위쪽이었으며 日帝末 이 곳에 移轉한 것이라 한다. 全高 一·八 m、下層屋蓋石幅 一 m、上層屋蓋石幅 七三·五 cm 造成樣式이 聞慶觀音里의 石塔을 彷彿케 한다.

그 곳 殷豐國民學校 敎師 趙宏濟氏의 말에 依하면 日帝末 이 塔을 移轉

間地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다. 彫刻이 流麗치는 못하나 均整하며 端雅한 佛像이다. 相好라든가 蓮花座의 伏蓮 및 各部의 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麗代로 推定되며 前述한 石塔과 同代作으로 생각된다. 實測值(cm)는

再建할時 塔속에서 「曲玉」이 二十四個나 發見되었다고 한다. 그를 집에 두면 害를 입는다고 하여 隣近 밭에 버리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 當時 下里駐在所 巡査部長(日人)이 몇 개를 가져갔다 하며

나머지도 마저 찾아 달라고 洞里사람들에게 金品까지 주어 찾았으나 영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作業當時의 老人들이 아직 그 동네에 많이 살아있음)

其二는 其一보다 年代가 上廻하는 듯 하며 風化의 度가 甚하다. 規模는 若干 작은 느낌이나 其一보다 優秀하다고 생각된다. 이 塔의 近處는 넓은 논으로 되어 있고 瓦片의 모습 이 無數히 散在하여 있어 古寺址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생각하건대 醴泉邑에서 이 上·下里의 골을 들면서 大乘·龍門의 古刹에 이어 이 곳 下里의 古寺址 위로 올라가서 上里 鳴鳳의 古寺 등이 있는데 「曲玉」이 나왔다 함은 注目할 만하다.

一然禪師 浮屠의 調査

黃 壽 永

慶北 軍威郡 古老面 華水洞 麟角寺는 一然禪師의 住刹로서 그의 塔碑가 있어 有名하다. 이 古碑는 現在 下端部만이 남아 있는 바 王羲之의 集字로서 人口에 膾炙되지 오래다.

